

《資治通鑑》의 ‘小說’ 인용

— <唐紀>를 중심으로*

안 예 선**

<목 차>

1. 서론
2. 司馬光의 주관적 자료 취사
3. 《資治通鑑·唐紀》 중 ‘小說’ 인용
 - (1) 小人의 전형 강조
 - (2) 君子의 형상 부각
 - (3) 상황의 극대화
4. 결론

1. 서론

《자치통감》은 東周 威烈王 23년(기원전403)부터 五代 後周 世宗 顯德 6년(959)까지, 1362년에 걸친 통사이다. 신뢰도에 있어 正史 이상으로, 최상의 권위를 인정받는 史書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두 가지가 간과된다. 첫째는, 사마광과 北宋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정리된 역사라는 점이다. ‘역사’라는 형식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7204).

** 고려대 중문과 강사(ays0606@hanmail.net)

1) 가장 공신력 있는 역사로 ‘正史’를 꼽겠지만 《자치통감》이 正史와 나란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24史는 모두 紀傳體이기 때문에 編年體인 《자치통감》은 정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권위에 있어서는 정사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王鳴盛, 《蛾術編·宋以後史學有五》: “編年一體, 唐以前無足觀. 至宋有《通鑑》, 始赫然與正史並列.”

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이념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우선시한 ‘서사’이다. 둘째는, 1362년의 역사가 하나의 맥락으로 재단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의 흐름은 아무런 의도와 방향이 없다. 그러나 사마광은 전국 시대부터 五代까지, 중국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하나의 틀로 해석하였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통감》을 둘러싼 공고한 사실의 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사실 자체가 아니며 史家에 의해 서사된 이야기라는 점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던 논의이다.²⁾ 그러나 이 지당한 명제가 이제까지 중국 史書에 도입된 적은 없다. 《史記》와 《漢書》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正史와 《통감》은 사료로서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논거로 인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문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통감》의 문장에 대해 “史學과 文學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³⁾ 장면 묘사와 인물 대사의 생동감을 분석하는 ‘감상식’ 연구로는 역사 서술 본연의 ‘문학성’을 고찰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통감》이 史家의 의도와 맥락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여 연결한 서사라는 관점에서 그 문학적 측면을 논의해보고자 한다.⁴⁾

사마광은 戰國시대부터 五代까지를 동일한 밀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시간적

2) 이 방법에 대한 역사학의 이론과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중국 史書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실제 사실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사실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결국 역사라는 단어 속에는 스토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란 정말로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그 과거를 서사화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 화이트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픽션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역사적 상황이란 본질적으로 비극적이지도, 우습지도, 로맨틱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사가 스스로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역사적 사건들과 일정한 플롯을 교묘히 조합시킴으로써 탄생된 것일 뿐이다.’라고 화이트는 말한다.” H.포터 에벗 저, 우찬재 등 역, 《서사학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문학과 지성사, 2012), 295-296쪽.

3) 張煦侯, 《通鑑學》(安徽人民出版社, 1981), 170쪽: “《通鑑》合史學文學而成一家.”

4) 본 연구가 《통감》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인 역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는 문학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와 주관은 끊임없이 개입되고 스며들어 자료를 배치하고 편집하고 윤색한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는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역사는 문학적 ‘敘事’일 수밖에 없다. 만약 가장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통감》의 문학적 측면을 규명할 수 있다면, 이를 중국 史書의 보편적 속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먼 고대일수록 사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전체인 正史를 그대로 가져다가 편년체로 전환하였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정사 이외의 자료를 다수 참고하였다. 章太炎은 《통감》이 正史를 채택한 비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통감》을 전체적으로 보면 西漢은 모두 《史記》와 《漢書》를, 東漢은 《後漢書》에서 7, 8할을, 魏晉에서 隋代까지는 정사를 채택한 것이 6, 7할이고, 唐代는 정사를 채택한 것이 5할도 안 되며, 五代는 모두 薛居正的 《舊五代史》에 근거하였다.⁵⁾

唐代에서 “정사의 채택이 5할도 안 된다”는 것은 《舊唐書》와 《新唐書》를 채택한 것이 절반이 되지 않으며, 그 외의 자료를 활용한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北宋 당시, 隋 이전은 자료가 대부분 실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사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통감》 중 隋 이전까지는 정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마광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그러나 唐代는 다르다. 정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사마광이 이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재편했다는 뜻이다.⁶⁾ 《통감》이 인용한 3백종 이상의 문헌 중, 唐代가 160여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⁷⁾

이 중 상당 부분이 ‘小說’이다. 사마광은 “옛 역사를 두루 열람하고 ‘小說’을 광범위하게 채택〔徧閱舊史，旁采小說.〕했다.⁸⁾ 여기서의 ‘小說’은 현대의 허구적 문학 장르인 novel이나 fiction이 아닌 세간에 전해지는 소문, 傳聞을 수집하여 엮은, 말 그대로 ‘하찮고 자질구레한 이야기(小說)’이다. 唐宋 시기와 역대 목록학 분류에서 ‘小說’로 칭해졌으나, 오늘날은 문학 장르인 소설과 구분하여 ‘筆記’라고 부른다. 《통감》의 당대 부분은 정사 외에 이 ‘필기’를 다수 채택

5) 章太炎, 《國學講演錄》(華東師範大學, 1995), 145쪽: 統觀《通鑑》所採, 西漢全採史漢, 東漢採范書十之七八, 魏晉至隋, 採正史者十之六七, 唐則採正史者十不及五, 至五代則全據薛史.

6) 黃永年, 《唐史史料學》(上海書店, 2002), 56쪽.

7) 孫永如, <從史料學論《資治通鑑·唐紀》的撰修>, 《揚州師院學報》(1988年第4期), 131쪽.

8) 司馬光, <進資治通鑑表>.

한 것이다.⁹⁾ 《통감》 중 가장 큰 편폭을 차지하며 사마광의 의도적인 선택적 서사가 집중적으로 발휘되어 있는 부분이 唐代이므로 본고는 <唐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자치통감》이 객관적 사료를 근거로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한 고증을 거쳐 편찬된 사서인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 즉 사마광이 의도와 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서사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로는 辛德勇의 《制造漢武帝-由漢武帝晚年政治形象的塑造看《資治通鑑》的歷史構建》이 있다. 이는 사마광이 前漢의 역사에서 小說인 《漢武故事》와 《趙飛燕外傳》를 인용하였음을 고찰한 것이다. 저자는 사마광이 “자신의 정치관념을 위해서 채택하지 말아야 할 문헌들을 채택하였으며 심지어 황당하고 불경한 小說 故事까지 채택하여 의도적으로 역사의 본래 면목을 바꾸었다”며 《통감》이 일반적인 인식만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서가 아니며, 사마광의 정치적 입장과 주관에 의해 선택되어진 자료의 결과물임을 주장하였다.¹⁰⁾ 이는 역사학 논문이기에 최종적으로는 《통감》이 상당부분 소설을 인용했으며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통감》을 사료로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서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또한 사마광의 주관적 자료 선택은 漢代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감》 전체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통감》이 小說을 인용하여 어떻게 의도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유도하였는지를 <唐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9) ‘필기’ 외에 ‘筆記小說’, ‘野史’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小說’이라는 용어가 fiction, novel을 가리키는 것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唐宋 시기의 명칭이었으며 司馬光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또한 ‘小說’이라는 용어에는 불확실하고 비공식적인 열등한 기록이라는 폄하적 인식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사로 편입시킨 모순적인 태도와 그 의도에 주목하고자 ‘小說’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0) 辛德勇, 《制造漢武帝-由漢武帝晚年政治形象的塑造看《資治通鑑》的歷史構建》(北京: 三聯書店, 2018), 71쪽.

2. 司馬光의 주관적 자료 취사

송대 朱淑貞은 사관의 취사선택에 따라 후세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했다. “붓은 취사선택이 천만 갈래니 후세 사람들은 그에 따라 기만당하네(筆頭去取千萬端, 後世遭它恣意瞞.)”¹¹⁾ 북송 시대 다음의 일화 또한 역사가 사관의 주관적인 선택과 연결에 의해 기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胡杻은 뛰어난 글 솜씨로 당시에 추종을 받았다. 만년, 눈에 병이 들어 문을 닫고 한거하였는데 하루는 史書 편찬 관서에서 한 귀인의 전기를 짓는 일을 의논해 왔다. 그 귀인은 젊은 시절 가난하여 돼지를 도축하는 백정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사관은 그것을 피하자니 실록이 아니고, 그것을 쓰자니 말을 하기가 곤란했다. 호단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는 젊은 시절 칼을 잡고 휘둘렀다”라고 하여 천하를 주관할 뜻이 있었음을 보이면 되지 않겠는가.”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²⁾

이 일화는 역사 서술의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첫째, 사관은 긍정적 인물의 부정적인 면은 감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즉 부정적 인물의 긍정적인 측면도 은폐될 것이다. 둘째, 과거의 백정 신분과 훗날 귀인이 된 결과를 인과관계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비천했던 신분은 큰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미화된다. 만약 이 사람이 악인이었다면 백정이었던 그의 전적은 ‘호살’적 면모로 그려졌을 것이다. 다행히 이 자는 귀인이 되었고, 미천한 과거의 신분은 ‘세상을 주재할 뜻을 가졌던’ 면모로 다듬어졌다.

사마광은 수백 종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는 수백 종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연결, 확대, 축소, 각색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통감》의 내용에 대해 “나라의

11) <讀史>, 葛兆光, 《中國思想史》第2卷(復旦大學出版社, 2000), 58쪽 재인용.

12) 王闢之, 《澠水燕談錄·才識》(中華書局, 1997), 40쪽: 胡旦文辭敏麗, 見推一時. 晚年病目, 閉門閑居. 一日, 史館共議作一貴侯傳, 其人少賤, 嘗屠豕猪. 史官以爲, 諱之即非實錄, 書之即難爲辭, 相與見旦, 且曰: “何不曰某少嘗操刀以割, 示有幸天下之志.” 莫不歎服.

홍망과 백성의 회복을 서술하여 보는 자들이 스스로 선악과 득실을 선택하고 권계삼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¹³⁾ 즉 ‘鑑戒’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위주로 선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간혹 사실성보다 우선되었다. 貞元 8년(792) 宣武節度使 劉玄佐의 죽음 앞에 이런 기록이 있다.

劉玄佐의 모친은 부귀해진 후에도 매일 한 필의 비단을 짜면서 그에게 말했다. “너는 본디 한미한 출신이었는데 천자께서 너를 이토록 부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반드시 목숨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현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히로써의 절개를 잃지 않았다. 庚午日, 유현좌가 죽었다.¹⁴⁾

胡三省은 註에서 사마광이 이 자료를 채택한 의도를 설명하였다.

역사는 유현좌가 충순한 것이 모친의 가르침 덕택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劉氏母墓誌>에 근거한 것이다. 唐代의 묘지문은 칭송이 과장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세상의 교화에 유익하다.¹⁵⁾

《통감》의 내용은 유현좌 모친의 묘지명에서 채택한 것이다. 묘지문의 내용은 실재가 아닌 과장이지만 ‘세상의 교화에 유익’하기 때문에 채택했다는 것은 사실의 여부보다 교화를 우선하여 자료를 선별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화에 유익하지 않다면 채택하지 않았다. 권198의 《考異》에 따르면, 李勣이 고구려 원정에서 태종이 親征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패하여 平壤으로 끌려가 옷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라며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太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마광은

13) 《資治通鑑》 卷69(中華書局, 1995), 2187쪽: 臣今所述, 止欲叙國家之興衰, 著生民之休戚, 使觀者自擇其善惡得失, 以爲勸戒. 이후 《자치통감》의 인용은 권수와 쪽수만 표기한다.

14) 《자치통감》 권234, 7526쪽: 其母雖貴, 日織絹一匹, 謂玄佐曰: “汝本寒微, 天子富貴汝至此, 必以死報之.” 故玄佐始終不失臣節.

15) 《자치통감》 권234, 7526쪽: 史言玄佐忠順, 母教也. 此言蓋本之<劉氏母墓誌>. 唐人誌墓, 不無溢美者, 然此等言語, 有益於世教.

이렇게 말했다. “李勣은 이후 혼자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니 어찌 태종이 굳이 친정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는 李勣의 아침일 뿐”이라며 《실록》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마광은 李勣의 발언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아침이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¹⁶⁾

사마광은 감계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善人의 부정적인 행적을 삭제하기도 했다. 태종 시기의 재상인 劉洎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보자. 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떠나면서 유계에게 남아 태자를 보좌하도록 했고, 유계는 다른 뜻을 품는 대신이 있다면 처결하겠다고 했다. 태종이 원정에서 돌아오다 병이 나자 유계가 근심하는 발언을 했는데 혹자가 이를 태종에게 참언하는 장면이다.

태종이 병이 났다. 유계는 안에서 나오면서 슬프고 두려워하는 안색으로 동료에게 말했다. “병세가 이러하니 옥체가 걱정스럽소!” 혹자가 태종에게 참소하여 말했다. “유계는 나라 일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어린 주군을 보좌하여 伊尹과 霍光의 전례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고 대신 중 뜻은 품은 자가 있으면 주살하겠다고 하였으니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그렇다고 여겨 庚申日 조서를 내렸다. “유계는 다른 사람과 몰래 논의하여 만일의 경우가 있으면 조정을 장악하고 이윤과 광광이 될 기회를 엿보며 大臣을 시기하여 모두 주살하고자 하였다. 자진할 것을 명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연루를 면하도록 한다.”¹⁷⁾

《통감》에서 유계가 不忠한 마음이 있다고 참소하는 자는 ‘혹자’이지만, 《實錄》과 《舊唐書》에 의하면 이는 褚遂良이다.¹⁸⁾ 《구당서》에는 유계가

16) 《자치통감》 권198, 6226쪽: 考異曰: 《實錄》云: “李勣奏曰: ‘向若陛下不自親行, 臣與道宗將數萬人攻安市城未克, 延壽等十餘萬抽戈齊至, 城內兵士復應開門而出, 臣救首救尾, 旋踵即敗, 必爲延壽等縛送向平壤, 爲莫離支所笑: 今日臣敢謝陛下性命恩澤.’ 帝素狎勣, 笑而領之.” 按勣後獨將兵取高麗, 豈必太宗親行邪! 此非史官虛美, 乃勣諛辭耳, 今不取.

17) 《자치통감》 권198, 6233쪽: 及上不豫, 洎從內出, 色甚悲懼, 謂同列曰: “疾勢如此, 聖躬可憂!” 或譜於上曰: “洎言國家事不足憂, 但當輔幼主行伊霍故事, 大臣有異志者誅之, 自定矣.” 上以爲然, 庚申, 下詔稱: “洎與人竊議, 窺窬萬一, 謀執朝衡, 自處伊霍, 猜忌大臣, 皆欲夷戮, 宜賜自盡, 免其妻孥.”

18) 《舊唐書》 권74 <劉洎傳>, 2612쪽: 太宗遼東還, 發定州, 在道不康, 洎與中書令馬周入謁, 洎周出, 遂良傳問起居, 洎泣曰: “聖體患臙, 極可憂懼.” 遂良誣奏之曰: “洎云: ‘國家之事不足

처형될 때 억울함을 진술할 지필을 법관에게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태종이 후에 그 사실을 알고는 담당 법관을 처벌하였다는 내용까지 있다. 《통감》은 이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考異》에서 “이는 일반 사람도 하지 않을 일이다. 저수량은 충직한 신하이며 평상시 원수진 일도 없는데 어찌 이리 했겠는가! 아마 許敬宗이 저수량을 미워하여 《實錄》을 편찬하면서 유계의 죽음을 저수량의 탓으로 돌린 것뿐”이라고 언급하였다.¹⁹⁾ 저수량은 태종에게 高宗을 보좌하도록 명을 받은 고명대신이자 존경받는 현신이었다. 타인의 말꼬리를 잡아 무고하여 죽음으로 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사마광은 이 사건에서 저수량의 흔적을 지운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朱熹는 사마광이 “자신의 뜻과 합하지 않는 것은 삭제[凡與己意不合者, 卽節去之]”하였다고 지적하였다.²⁰⁾

물론 《구당서》와 《실록》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마광 또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추론뿐이다. 어느 것이 진실이냐의 여부를 떠나 이는 사관이 의도에 따라 사료를 재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는 善人の 부정적인 면이나 惡人の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고 선인은 훌륭한 면만을, 악인은 그릇된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 학자는 중국의 역사가 모든 인물을 君子와 小人으로 이분한다고 하기도 했다.²¹⁾ 모든 인물이 군자와 소인으로만 양분된다면 과하지만 군자의 군자다운 면만을, 소인의 소인적 면모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분명히 보인다. 이에 대해 唐代 劉知幾는 이렇게 말했다.

慮，正當傳少主行伊霍故事，大臣有異志者誅之，自然定矣。”太宗疾愈，詔問其故，洎以實對，又引馬周以自明。太宗問周，周對與洎所陳不異。遂良又執證不已，乃賜洎自盡。洎臨引決，請紙筆欲有所奏，憲司不與。洎死，太宗知憲不與紙筆，怒之，並令屬吏。

- 19) 《자치통감》 권198, 6234쪽: 此事中人所不爲, 遂良忠直之臣, 且素無怨仇, 何至如此! 蓋許敬宗惡遂良, 故修《實錄》時以洎死歸咎於遂良耳.
- 20) 《朱子語類》 卷134: 무릇 자신의 의도와 합하지 않는 것은 다 삭제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뜻이 그러하지 않음을 모른 것이다. 《통감》은 이러한 것들이 많다. (溫公修書, 凡與己意不合者, 卽節去之, 不知他人之意不如此. 《通鑑》此類多矣.)
- 21) 陳四益 저·김동민 역, 《동양 고전과 역사, 비판적 독법》(글항아리, 2014).

훌륭한 자는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히 여기는 것이니, 비록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비난하지 않는다. 악한 자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잘한 일이 있더라도 칭찬하지 않는다.²²⁾

五代에 편찬된 《舊唐書》가 있는 상황에서 북송 시기 《新唐書》를 다시 편찬한 것은 《구당서》가 선악이 분명하지 않아 권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²³⁾ 善人의 훌륭한 면을 본받고 惡人의 악한 면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북송 시기에 필요한 역사였다. 《신당서》와 거의 동시대에 편찬된 《통감》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鑑戒'는 자료의 취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태종이 玄武門의 난을 일으키기 직전, 武德 9년의 기록에서 사마광은 《統紀》와 劉餗의 《小說》의 상이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한다.

두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劉餗의 《小說》이 인지상정에 가깝고 세상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小說》을 따른다.²⁴⁾

《小說》의 원제는 《隋唐嘉話》로 小說類 저작이며, 《統紀》는 唐代 편년체 史書이므로 자료의 신빙성으로 본다면 《統紀》를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사마광은 “교화에 유익하다”는 이유로 《小說》을 채택하였다. 불확실하지만 더 교훈적인 소설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경향은 《통감》 전체에 관철되었고 역사는 사실 그대로가 우선이 아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쪽으로 서술되었다.

22) 劉知幾, 《史通通釋·疑古》(臺北: 藝文印書館, 1978), 344쪽: 是以美者, 因其美而美之, 雖有其惡, 不可毀也. 惡者, 因其惡而惡之, 雖有其美, 不可譽也.

23) 歐陽脩는 완성된 《新唐書》를 바치는 글에서 《舊唐書》를 이렇게 비판하였다. “명군과 현신, 탁월하고 위대한 공적을 세운 자들, 어리석고 포악한 난신적자, 화근, 죄악의 괴수들의 훌륭함과 사악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실로 권계로 삼아 오래도록 전할 수 없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使明君賢臣雋功偉烈, 與夫昏虐賊亂禍根罪首, 皆不得暴其善惡, 以動人耳目. 誠不可以垂勸戒, 示久遠, 甚可歎也.)” 《歐陽脩全集》 권91 <進新修唐書表> (中華書局, 2001), 1341쪽.

24) 《자치통감》 권191, 6007쪽: 二說未知誰得其實, 然劉說近厚, 有益風化, 故從之.

3. 《資治通鑑·唐紀》 중 ‘小說’ 인용

인물 중심의 紀傳體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사건을 배치하는 편년체는 중대한 사건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사마광은 전국시대부터 前漢까지의 부분에서 대체로 《史記》를 바탕으로 삭제·축소하였다. 《사기》의 생생한 장면묘사와 대화체는 방대한 시간을 압축해서 서술해야 하는 편년체의 역사 서술에 부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唐代에서는 兩《唐書》에 없는 소설 자료를 다량 첨가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마광은 기존의 正史가 분량이 너무 많다고 “중요한 것만 취하여〔舉撮機要〕” 《통감》을 편찬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첨가한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마광이 교훈적인 서사를 위해 소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²⁶⁾

(1) 小人的 전형 강조

사마광은 소인의 형상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 대목에 소설을 삽입하였다. 《통감》 중 태종 시기 재상 宇文士及의 죽음이 기록된 대목을 보자.

殿中監鄧縱公 우문사급이 죽었다. 한 번은 태종이 나무 아래에 멈추어 그 나무를 좋아한 적이 있다. 우문사급이 쫓아와 끊임없이 칭찬하자 태종이 정색하며 말했다. “魏徵이 항상 내게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도록 권했었다. 나는 아첨하는 자

25) <進資治通鑑表>

26) 전통시기 ‘小說’로 지칭되었던 저작의 유형과 범주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며 目錄書의 소설류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소설류 외에 雜史類, 傳記類, 故事類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전통 시기 목록학의 최종적이고 공인된 귀납이라고 할 수 있는 《四庫全書》의 ‘小說類’에 수록된 唐代 筆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 누구인지 몰랐었지만 내심 너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금 보니 과연 틀리지 않았구나!” 우문사급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²⁷⁾

우문사급은 貞觀 연간, 현신과 충신이 즐비했던 사이에서 그들 못지않은 존재감이 있었던 간신이다. 이 대목은 《隋唐嘉話》에서 채택한 것이다. 일화는 태종과 우문사급의 실제 대화가 발생했던 때가 아닌, 우문사급의 죽음 뒤에 배치되었다. 죽음 뒤에 배치된 이 일화는 우문사급의 일생 전체를 간사함과 아첨으로 개괄하여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역사적 평가인 셈이다. 그런데 《수당가화》에 수록된 원래 이야기는 다른 느낌이다.

태종이 한 나무 아래 멈춰 “좋은 나무구나”라고 한 적이 있다. 우문사급이 따라서 나무를 끊임없이 칭찬했다. 태종이 정색하며 말했다. “魏徵이 나에게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라 권했었다. 나는 아첨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항상 너를 의심하면서도 분명히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보니 과연 그렇구나.” 우문사급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말했다. “재상직에 있는 관리들이 계속 직간을 올리니 폐하께서는 마음이 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신이 다행히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는데 만약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비록 귀한 천자의 몸이라 하더라도 무슨 즐거움이 있으시겠습니까?” 태종의 마음이 다시 풀렸다.²⁸⁾

《통감》은 우문사급의 사죄에서 끝나지만, 《수당가화》에서는 밑줄 친 후반부가 더 있다. 꾸밈음에 주눅 들지 않고 간사한 변명을 하는 우문사급과 노기를 푸는 태종의 모습은 감동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다. 《통감》은 후반부를 삭제하고 수록한 것이다. 사마광은 일화를 편집하여 태종은 아첨을 용납하지 않는 영명한 군주로, 우문사급의 간사한 언행을 경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 장면을 사실로 간주하여 인용한 것이라면 태종의 화가 누그러지는 부분

27) 《자치통감》 권196, 6179쪽: 殿中監郢縱公宇文士及卒。上嘗止樹下，愛之，士及從而譽之不已，上正色曰：“魏徵常勸我遠佞人，我不知佞人爲誰，意疑是汝，今果不謬！”士及叩頭謝。

28) 《隋唐嘉話》上, 12쪽: 太宗嘗止一樹下，曰：“此嘉樹。”宇文士及從而美之不容口，帝正色曰：“魏公嘗勸我遠佞人，我不悟佞人爲誰，意常疑汝而未明也，今日果然。”士及叩頭謝曰：“南衙羣官，面折廷爭，陛下嘗不得舉手，今臣幸左右，若不少有順從，陛下雖貴天子，復何聊乎？”帝意復解。

까지 전체를 수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광은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였다. 사실성보다는, 우문사급의 간사함과 아첨을 경계하는 군주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당가화》는 《통감》이 가장 많이 인용한 소설 중 하나로 《新唐書·藝文志》, 《直齋書錄解題》의 ‘소설류’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 劉餗은 젊은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자신의 저작을 ‘小說’이라 했으며, 이 책의 다른 제목이 ‘小說’이기도 하다.²⁹⁾ 《수당가화》에 대한 평가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적다”, “아이들 장난처럼 비루하고 거짓되다”는 것이었다.³⁰⁾

사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문사급의 일화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불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실성에서 결함이 있는 자료를 삽입하여 역사의 엄정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채택, 죽음 뒤의 배치, 원문과 다른 편집에는 더 도덕적인 역사를 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게다가 독자가 감동받고 교훈을 얻게 되는 지점은 ‘우문사급의 죽음’이 아닌 일화를 통해서이다. 결국 감계의 서사를 완성하는 것은 이 하찮고 사소한 이야기(小說)의 힘인 셈이다.

玄宗 天寶 11년(752)에는 楊國忠이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고 인사 문제를 전횡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역시 소설을 인용하였다.

양국충은 역지를 부리고 경박하며 위엄이 없었다. 재상이 되자 천하의 일을 자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여기고 중요한 정무를 독단적이고 경솔하게 결정했다. 조정에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公卿 이하를 턱짓과 낫빛으로 부리니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양국충은 侍御史부터 재상까지 40여 개의 직함을 겸직하였고 조정에서 뛰어난 재능과 행실로 명성이 있는 자들 중 자신이 등용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축출하였다. 혹자가 陝郡의 進士 張彖에게 양국충을 찾아가면 금방 관직을 얻어 출세할 수 있을 거라며 권하였다. 그러나 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29) 《隋唐嘉話·序》: 나는 젊은 시절, 예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大典이 되기 부족한 것들이기 때문에 말단적인 小說로 엮었다.(余自髫髻之年, 便多聞往說, 不足備之大典, 故繫之小說之末.)

30) 吳曾, 《能改齋漫錄》 권4: “(隋唐嘉話)小說可信者少” 桑世昌, 《蘭亭考》 권8: “(隋唐嘉話)鄙妄, 僅同兒戲.”

모두 양국충을 태산처럼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는 한 덩이 빙산에 지나지 않는다네. 장차 천하에 변고가 있게 되면 그는 태양에 빙산이 녹듯 즉시 무너지고 말걸세.”³¹⁾

“자신이 등용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축출하였다[不爲己用者, 皆出之.]”까지는 《舊唐書》와 동일한데 뒷부분에 張象이라는 자의 일화를 첨가하였다. 이는 《開元天寶遺事》에서 인용한 것으로 張象이라는 인물은 新·舊 《唐書》 및 다른 문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³²⁾ 《개원천보유사》는 “민간의 말을 수집하고[採摭民言]” “일반적이고 비루한 내용은 버리고 기이한 것을 모아[去凡削鄙, 集異編奇]” 五代의 王仁裕가 엮은 것이다.³³⁾ 이미 개원, 천보 연간으로부터 근 이백 년이 지난 시기 민간에서 유행하던 기이한 이야기를 모아 엮은 것이므로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고전서》의 편수관들도 사마광이 왜 이런 小說을 역사로 채택했는지에 의문을 표할 정도였다.³⁴⁾ 南宋 학자 洪邁는 오류가 너무 많이라며 “허망한 서적[妄淺書]”이니 “없애버려야 한다”고 혹평했을 정도다.³⁵⁾ 이러한 문제점을 사마광이 몰랐을 리는 없다. 권세에 영합하지 않는 장단의 기개를 기리기 위해서 채택했을까. 그보다는 양국충을 곧 녹아 사라질 氷山에 비유한 것이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장단의 개인적 지조를 부각시키려 했다면 《개원천보유사》에 수록된 이후 그의 행적까지 함께 수록했을 것이다.

개원 말 천보 연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李林甫이다. 기전체는

31) 《자치통감》 권216, 6915쪽: 國忠爲人強辯而輕躁, 無威儀. 旣爲相, 以天下爲己任, 裁決機務, 果敢不疑; 居朝廷, 攘袂捋腕, 公卿以下, 頤指氣使, 莫不震懼. 自侍御史至爲相, 凡領四十餘使. 臺省官有才行時名, 不爲己用者, 皆出之. 或勸陝郡進士張象謁國忠, 曰: “見之, 富貴立可圖.” 象曰: “君輩倚楊右相如泰山, 吾以爲冰山耳! 若皎日旣出, 君輩得無失所恃乎!” 遂隱居嵩山.

32) 《開元天寶遺事》(中華書局, 2012), 26쪽, <依氷山>.

33) 《開元天寶遺事》序.

34) 《四庫全書總目·史部總敘》: 如淖方成禍水之語則採及《飛燕外傳》, 張象氷山之語則採及《開元天寶遺事》, 並小說亦不遺之.

35) 《容齋隨筆》 권1 <淺妄書>

관련 인물로 일화가 분산되지만, 편년체는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인물에 대한 포괄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관 연간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현신들의 ‘간언(諫)’이다. 거듭되는 간언과 태종의 納諫,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후의 실책과 반성, 이는 독자에게 貞觀之治를 가능케 했던 것은 군신간의 직언과 納諫이라는 인상을 준다. 마찬가지로 천보 연간에 연속적으로 나열된 이임보의 악행은 독자에게 당나라의 쇠락이 간신의 이간질과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군주의 몽매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임보는 개원 22년(734)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兩《唐書》 외에 소설까지 인용하면서 그의 교활하고 사악한 면모를 극대화하였다.

현종이 勤政樓에서 주렴을 내리고 악무를 구경하고 있었다. 병부시랑 盧絢은 현종이 이미 자리를 뜬 줄 알고 채찍을 들고 고삐를 당기며 누각 아래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盧絢의 자태가 우아하고 빠어나 현종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하였다. 이임보는 항상 후한 뇌물로 현종의 측근을 매수하여 현종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盧絢의 자제를 불러다가 말했다. “부친께서 명망이 높으시니 지금 交州, 廣州 지역으로 가서 다스릴 인제가 필요하여 폐하께서 부친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시오. 가능하겠소? 만약 먼 곳으로 발령 받는 것이 꺼리진다면 관직을 강등해야 하오. 아니면 낙양에서 태자빈객이나 태자첨사를 맡는 것도 능력있는 현인의 직책이니 어떠하오?” 盧絢은 두려워하며 태자빈객, 첨사로 임명될 것을 청하였다. 이임보는 衆望과 어긋나는 것을 걱정하여 盧絢을 華州刺史로 임명하였다. 부임지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이 있어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무고하여 詹事, 員外同正에 임명하였다.³⁶⁾

이 대목은 鄭處誨의 《明皇雜錄》에서 취한 것이다. 송대 葉夢得은 《명황잡록》의 오류를 지적하며 “小說의 사건 기록은 눈과 귀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

36) 《자치통감》 권215, 6853-6854쪽: 上嘗陳樂於勤政樓, 垂簾觀之. 兵部侍郎盧絢謂上已起, 垂鞭按轡, 橫過樓下; 絢風標清粹, 上目送之, 深歎其蘊藉. 林甫常厚以金帛賂上左右, 上舉動必知之, 乃召絢子弟謂曰: “尊君素望清崇, 今交、廣藉才, 聖上欲以尊君爲之, 可乎? 若憚遠行, 則當左遷; 不然, 則以賓、詹分務東洛, 亦優賢之命也, 何如?” 絢懼, 以賓、詹爲請. 林甫恐乖衆望, 乃除華州刺史. 到官未幾, 誣其有疾, 州事不理, 除詹事, 員外同正.

니니 어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³⁷⁾ 洪邁는 그 내용에 대해 “함부로 수록하였다[妄載]”며 비난하였다.³⁸⁾ 북송 시기 《冊府元龜》의 편찬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명황잡록》은 대부분 괴이한 내용[明皇雜錄事多語怪]”이라며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³⁹⁾ 그러나 이 일화는 이임보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게 현종 주변의 인물을 음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이임보는 현종 주변의 현신들을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제거하여 고립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사마광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열거한다. “이임보는 현종에게 밤낮으로 장구령을 헐뜯었고 현종은 점차 張九齡을 멀리하였다[林甫日夜短九齡於上, 上浸疏之.]” “이임보는 군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간관들을 불러다가 말했다. …… 이때부터 언로가 막히게 되었다.[李林甫欲蔽塞人主視聽, 自專大權, 明召諸諫官謂曰 …… 自是諫爭路絕矣.]” “무릇 현종이 호의를 갖는 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친분을 맺었다가 지위와 권세가 점차 위협으로 느껴지면 그때마다 계략으로 내쫓았다.[凡爲上所厚者, 始則親結之, 及位勢稍逼, 輒以計去之.]” “이임보는 재상이 되자 재능과 명망, 공적이 자신보다 높은 자와 현종이 우대하는 자, 권세와 지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자들은 반드시 모든 계략을 동원하여 내쫓았다. 특히 학식이 있는 선비를 꺼려 간혹 그와 잘 지내는 척하며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서 몰래 음해하였다.[李林甫爲相, 凡才望功業出己右及爲上所厚, 勢位將逼己者, 必百計去之. 尤忌文學之士, 或陽與之善, 啗以甘言而陰陷之.]” “이임보는 그(裴寬)가 재상이 될까 두려워 기피하였다.[李林甫恐其入相, 忌之.]” “이임보는 그(王瑀)의 재능과 기질을 시기하여 일을 만들어 그를 제거하였다.[李林甫惡其負材使氣, 故因事除之.]” “이임보는 재야의 선비들이 글을 올려 자신의 간악함을 고발할까 두려워 하였다.[李林甫恐草野之士對策斥言其姦惡]”⁴⁰⁾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독자에게 명확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다. 간신의 면모와 형상을 구체적

37) 葉夢得, 《避暑錄話》 권상: 小說記事, 苟非耳目親接, 安可輕書耶.

38) 洪邁, 《容齋隨筆》 권3 <張嘉貞>.

39) 洪邁, 《容齋隨筆·四筆》 권11 <冊府元龜>.

40) 이상 모두 《자치통감》, 6824쪽, 6825쪽, 6826쪽, 6853쪽, 6862쪽, 6875쪽, 6876쪽.

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화가 필요했고 사마광은 《實錄》, 國史, 正史 등의 공인된 자료 외에 小說까지 활용한 것이다. 사실을 담보할 수 없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감동적이며 강한 인상을 주는 小說의 장점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마광은 큰 사건과 관련이 없고 명백한 오류와 허위가 아니면서 인물의 선악을 잘 보여주는 소설을 적절한 대목에 배치, 편집하여 더 교훈적인 서사를 완성하는 데 활용하였다.

(2) 君子の 형상 부각

貞觀 연간에는 직간의 대명사인 魏徵의 일화가 이례적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다. 심지어 태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간언을 했던 일화를 집중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이하는 소설에서 채택한 것이다.

魏徵이 한 번은 성묘를 갔다 돌아와 태종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폐하께서 남산에 행차하려 하셔서 밖에서 모두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결국 가지 않았고들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태종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 사실 그럴 마음이 있었으나 경이 화낼 게 두려워 그만두었소.” 또 한 번은 태종이 예쁜 새를 갖게 되어 팔에 얹어두고 있었는데 멀리서 위징이 오는 것을 보고는 품 속에 감추었다. 위징은 오래도록 아뢰었고 새는 결국 품 안에서 죽었다.⁴¹⁾

태종이 조회를 마친 후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이 시골 영감을 죽여버릴 것이오.” 황후가 누구인지를 묻자 태종이 말했다. “위징이 매번 조정에서 나를 모욕하오.” 황후가 물러나 조복을 갖춰 입고 마당에 섰다. 태종이 놀라 까닭을 묻자 황후가 대답했다. “신첩은 군주가 영명하면 신하가 직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징이 직간을 한 것은 폐하께서 영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첩이 어찌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태종이 흐뭇해했다.⁴²⁾

41) 《자치통감》 권193, 6059쪽: 嘗謁告上冢, 還, 言於上曰: “人言陛下欲幸南山, 外皆嚴裝已畢, 而竟不行, 何也?” 上笑曰: “初實有此心, 畏卿嗔, 故中輟耳.” 上嘗得佳鷄, 自臂之, 望見徵來, 匿懷中: 徵奏事固久不已, 鷄竟死懷中.

42) 《자치통감》 권194, 6096쪽: 上嘗罷朝, 怒曰: “會須殺此田舍翁.” 后問爲誰, 上曰: “魏徵每

사마광은 신·구 《당서》보다 훨씬 많은 위징의 간언 일화를 수록하였는데, 위 대목 역시 《隋唐嘉話》에서 채택된 것이다.⁴³⁾ 원래 《수당가화》에서 이들은 명확한 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짧은 조목이다. 그러므로 이 일화를 특정 시간에 위치 짓는 순간 사실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마광은 이들을 정관 2년(628)과 6년(632)으로 귀속시키면서 역사성을 부여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위징과 태종의 형상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일화는 사실성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직간을 서슴지 않았던 위징의 면모를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황제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직간하는 신하, 심지어 신하의 눈치까지 보는 황제의 모습이 다소 과장되지만, 사마광이 중시한 것은 위징의 눈치를 보느라 새를 죽이고 말았다는 일화가 사실인지의 여부가 아니었을 것이다.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은 魏徵의 직간, 그것을 불편해하면서도 받아들이고 경청했던 태종, 그리고 그들의 직간과 納諫이 貞觀이라는, 북송이 바라마지 않는 치세를 이루어냈다는 감계의 효과를 더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郭子儀는 안사의 난을 평정하고 당나라를 중흥시킨 최고의 공신이다. 사마광은 객자의의 도덕적 인품과 명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채택하

延辱我。”后退具朝服立於庭，上驚問其故，后曰：“妾聞主明臣直；今魏徵直，由陛下之明故也，妾敢不賀！”上乃悅。

- 43) 《隋唐嘉話》(中華書局, 1997) 6-7쪽에는 3조목으로 나뉘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① 鄭公嘗拜掃還，謂太宗：“人言陛下欲幸山南，在外悉裝了，而竟不行，因何有此消息？”帝笑曰：“時實有此心，畏卿嗔遂停耳。”② 太宗曾罷朝，怒曰：“會殺此田舍漢！”文德后問：“誰觸忤陛下？”帝曰：“豈過魏徵，每事延辱我，使我常不自得。”后退而具朝服立於庭，帝驚曰：“皇后何爲若是？”對曰：“妾聞主聖臣忠，今陛下聖明，故魏徵得直言。妾幸備數後宮，安敢不賀？”③ 太宗得鶴絕俊異，私自贊之，望見鄭公，乃藏於懷。公知之，遂前白事，因語古帝王逸豫，徵以諷諫。語久，帝惜鶴且死，而素嚴敬徵，欲盡其言。徵語不時盡，鶴死懷中。
- 44) 《隋唐嘉話》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다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당가화》와 같은 문헌은 《자치통감》처럼 '사실적 역사'를 표방하는 사서에 부적절하다. 《수당가화》의 기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당가화》에 수록된 질투가 심한 房玄齡의 아내 이야기는 《朝野僉載》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兵部尙書 任瓌'의 일화로 수록되어 있다. 동일한 이야기가 인물만 바뀐 채 수록된 경우는 소설에 적지 않다. 소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에 충실한 역사라면 소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송 시기의 사마광이 이미 4백년이 지난 정관 연간의, 공식 기록이 아닌 소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었다. 간혹 곽자의의 명성에 누가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생각건데 곽자의는 분명 하지 않았을 것이다(計子儀必不爲也.)”⁴⁵⁾라며 제외하였다. 사마광이 소설에서 채택한 곽자의의 일화를 보자. 代宗은 곽자의의 공로를 인정하여 아들 郭曖를 昇平公主와 혼인시켜 사돈을 맺었다. 그들의 부부싸움이 《통감》에 수록되어 있다.

郭曖가 한 번은 승평공주와 다투다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천자라는 것을 믿고 이르는 것이요? 우리 부친은 천자가 별 것 아니라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것 뿐이오!” 화가 난 공주는 수레를 달려와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고 네 지아버가 맞는 것이다. 곽자의가 천자가 되려 했다면 천하가 어찌 우리 집안 것이겠느냐!” 그리고 잘 타일러 돌려보냈다. 이를 들은 곽자의가 곽애를 가둔 후 입궐하여 죄를 청하였다. 황제가 말했다. “속담에 ‘바보 인척, 귀머거리인 척하지 않으면 가장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자식들이 규방에서 한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소.” 곽자의는 돌아와 곽애에게 수십 대의 매질을 했다.⁴⁶⁾

곽자의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황제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근신하고 자식의 단속에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일화는 《因話錄》에서 인용한 것이다.⁴⁷⁾ 《인화록》은 趙璘이 지은 것으로 《신당서·예문지》, 《郡齋讀書志》, 《사고전서》에서 모두 소설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곽자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자치통감》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인식되지만, 그 출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소설이다. 만약 사마광이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 장면은 지금처럼 회자되지 못

45) 《자치통감》 권223, 7157쪽.

46) 《자치통감》 권224, 7194쪽: 郭曖嘗與昇平公主爭言, 曖曰: “汝倚乃父爲天子邪? 我父薄天子不爲!” 公主志, 奔車奏之. 上曰: “此非汝所知. 彼誠如是, 使彼欲爲天子, 天下豈汝家所有邪!” 慰諭令歸. 子儀聞之, 囚曖, 入待罪. 上曰: “鄙諺有之: ‘不痴不聾, 不作家翁.’ 兒女子閨房之言, 何足聽也!” 子儀歸, 杖曖數十.

47) 《因話錄》 권1: 郭曖嘗與昇平公主琴瑟不調, 曖罵公主: “倚乃父爲天子耶? 我父嫌天子不作.” 公主志啼, 奔車奏之. 上曰: “汝不知, 他父實嫌天子不作. 使不嫌, 社稷豈汝家有也?” 因泣下, 但命公主還. 尙父拘曖, 自詣朝堂待罪. 上召而慰之曰: “諺云, ‘不痴不聾, 不作阿家阿翁.’ 小兒女子閨幃之言, 大臣安用聽?” 錫賚以遣之. 尙父杖曖數十而已. 《唐五代筆記小說大觀》, 836쪽.

했을 것이다. 사관은 독자가 곽자의를 어떤 인물로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자료의 선택과 연결로 유도한다.

갑오일, 곽자의가 적절한 사유 없이 군중에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남양부인(곽자의 부인) 유모의 아들이 위반하여 都虞候가 그를 장살하였다. 아들들이 곽자의에게 울며불며 都虞候의 방자함을 하소연하였다. 곽자의는 호통을 치며 그들을 쫓아냈다. 이튿날, 이 일을 동료들에게 말하며 탄식했다. “제 아들들은 모두 한심한 것들입니다. 아버의 都虞候를 칭찬하지 않고 모친의 유모 아들들 아끼다니 한심한 것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⁴⁸⁾

곽자의가 이룬 공적과 명성만큼 자식과 집안을 엄하게 단속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역시 《인화록》에서 인용한 것이다.⁴⁹⁾ 사마광은 《인화록》 중 곽자의에 관한 일화를 거의 채택했을 정도지만 그 중 곽자의에게 불리한 기록은 채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舊唐書·郭子儀傳》 마지막에 史臣의 논평은 이러하다. “권위는 온 세상을 기울일 정도였지만 조정에서는 꺼리지 않았고, 공적은 한 시대를 뒤덮을 정도였지만 군주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욕망하는 모든 사치를 다하였지만 군자는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았다. 부귀와 천수를 누렸으며 자손은 번창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예로운 삶이었으니 운명의 성대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참언 때문에 노여움에 호부랑중 張譚을 무고하여 장살한 일만은 사람들이 박정하다고 여겼다.”⁵⁰⁾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었지만 실수가 없진 않았던 것이다. 참언을 듣고 부하를 장살한 일에 대해 《因話錄》에 내막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광은 다

48) 《자치통감》 권224, 7198쪽: 甲午, 郭子儀禁無故軍中走馬。南陽夫人乳母之子犯禁, 都虞候杖殺之。諸子泣訴於子儀, 且言都虞候之橫, 子儀叱遣之。明日, 以事語僚佐而歎息曰: “子儀諸子, 皆奴材也。不賞父之都虞候而惜母之乳母子, 非奴材而何!”

49) 《因話錄》 권2: 王在河中, 禁無故走馬, 犯者死。南陽夫人乳母之子抵禁, 都虞候杖殺之。諸子泣告於王, 言虞候縱橫之狀, 王叱而遣之。明日, 對賓僚吁歎者數四。衆皆不曉, 徐問之, 王曰: “某之諸子, 皆奴材也。” 遂告以故, 曰: “伊不賞父之都虞候, 而惜母之阿姝兒, 非奴材而何?” 《唐五代筆記小說大觀》, 840쪽.

50) 《舊唐書》, 3467쪽: 權傾天下而朝不忌, 功蓋一代而主不疑, 侈窮人欲而君子不之罪。富貴壽考, 繁衍安泰, 哀榮終始, 人道之盛, 此無缺焉。唯以讒怒誣奏判官戶部郎中張譚杖殺之, 物議爲薄.

른 일화를 모두 채택하면서도 이는 채택하지 않았다.⁵¹⁾ 劉知幾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善人에 대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선악 중 일면만 부각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황의 극대화

小說의 인용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부각시킨 경우를 보자. 武則天은 말년, 張易之, 張昌宗 두 남총을 총애하여 3품의 관직까지 하사하였고 장씨 형제가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일가친척들까지 관직을 얻게 되었다. 이들의 정치에 대한 폐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음의 일화는 잘 보여준다.

張易之, 張昌宗은 호화와 사치를 다투었다. 동생 張昌儀은 洛陽令이 되자 청탁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薛氏 성의 후보자가 금 50냥과 소개장을 갖고 장창의의 말을 가로 막으며 뇌물을 바쳤다. 장창의는 금은 자신이 갖고 조정에 도착해서는 소개장을 天官侍郎 張錫에게 주었다. 며칠 후 張錫이 소개장을 잃어버려 장창의에게 물었다. 장창의는 욕하며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나도 기억을 못하지. 설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겠나.” 장석은 두려워하며 물러나 아예 薛氏 성을 가진 60여 명을 모두 관직에 배정하였다.⁵²⁾

張昌儀의 권세가 두려워 60여 명의 설씨에게 모두 관직을 남발한 상황은 당시 장씨 형제들의 정치 농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목은 張鷟의 《朝野僉載》에서 채택한 것이다.⁵³⁾ 《조야침재》는 《郡齋讀

51) 《因話錄》 권6, 《唐五代筆記小說大觀》, 871쪽.

52) 《자치통감》 권206, 6547쪽: 易之、昌宗競以豪侈相勝。弟昌儀爲洛陽令, 請屬無不從。嘗早朝, 有選人姓薛, 以金五十兩并狀邀其馬而賂之。昌儀受金, 至朝堂, 以狀授天官侍郎張錫。數日, 錫失其狀, 以問昌儀, 昌儀罵曰: “不了事人! 我亦不記, 但姓薛者即與之。”錫懼, 退, 索在銓姓薛者六十餘人, 悉留注官。

53) 《朝野僉載》 권3, 78쪽: 張昌儀爲洛陽令, 借易之權勢, 屬官無不允者。風聲鼓動, 有一人姓薛, 賞金五十兩遮而奉之。儀領金, 受其狀, 至朝堂, 付天官侍郎張錫。數日失狀, 以問儀, 儀曰: “我亦不記, 得有姓薛者即與。”錫檢業內姓薛者六十餘人並令與官。其蠹政也如此。

書志》, 《直齋書錄解題》, 《사고전서》에서 모두 소설류로 분류되어 있다. 사마광은 《통감》의 다른 곳에서 《조야첨제》에 대해 “말이 너무 지나치니 취하지 않는다[言之太過, 今不取.]”, “張鷟의 사건 기록은 대부분 실제보다 지나치다[張鷟語事多過其實]”, “이는 張鷟이 及善을 미워하여 그를 비방한 것이다 [此蓋張文成惡及善, 毀之耳.]”라며 張鷟의 기록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보았다. 실제 張鷟의 관직이 낮았기 때문에 조정 大事의 내막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며 호기심에 부정확한 소문을 기록했을 것이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광이 이 일화를 채택한 것은 당시 장씨 형제가 조정의 권위와 기강을 추락시킨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 현종이 얼마나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이 마비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보자.

갑신일, 안록산의 생일이 되자 황제와 양귀비는 의복, 진귀한 기물,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하사하였다. 3일 후, 안록산을 궁으로 불러와 양귀비가 비단으로 큰 강보를 만들어 안록산을 싸서는 궁인들에게 비단 가마에 그를 실어오게 했다. 현종은 후궁들이 즐거워하며 웃는 소리를 듣자 무슨 일인지 물었다. 측근들은 아이가 생후 3일째 되는 날 목욕시키는 행사를 양귀비가 안록산에게 해 주고 있다고 답하였다. 현종은 직접 가서 보고는 기뻐하며 양귀비에게 아이의 목욕비까지 하사하였고 또 후한 예물을 안록산에게 하사하고는 한바탕 즐거워한 후 끝냈다. 이때부터 안록산은 궁정의 출입에 막힘이 없었고 간혹 양귀비와 함께 식사하거나 밤새도록 나오지 않아 추문이 밖까지 나돌았지만 현종은 의심하지 않았다.⁵⁵⁾

이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기 전인 天寶 9년(751)의 기록이다. 안록산은 현종의 눈에 들기 위해 양귀비의 양자가 될 것을 자청했었는데, 생일을 맞은 안록산을 양귀비가 목욕을 시켜주었고 현종은 이를 흠족하게 지켜보고 상을 내렸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다. 胡三省은 이 대목에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다.

54) 周勛初, 《唐代筆記小說敘錄》(鳳凰出版社, 2008), 12쪽.

55) 《資治通鑑》 卷216, 6903쪽: 甲辰, 祿山生日, 上及貴妃賜衣服、寶器、酒饌甚厚。後三日, 召祿山入禁中, 貴妃以錦繡爲大襪襪, 裹祿山, 使宮人以綵輿舁之。上聞後宮歡笑, 問其故, 左右以貴妃三日洗祿兒對。上自往觀之, 喜, 賜貴妃洗兒金銀錢, 復厚賜祿山, 盡歡而罷。自是祿山出入宮掖不禁, 或與貴妃對食, 或通宵不出, 頗有醜聲聞於外, 上亦不疑也。

“현종이 안록산을 대한 것을 보면 어리석은 군주도 하지 않을 일들이다. 거의 하늘이 그의 혼을 빼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觀明皇所以待祿山者，昏庸之主所不爲，殆天奪之魄也.]”

이 내용은 《開元天寶遺事》에서 채택한 것으로 清代 袁枚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양귀비가 안록산을 목욕시킨 일은 신·구《당서》에 모두 없는데 《사치통감》은 唐人의 소설인 《天寶遺事》에서 채택하여 포함시켰다. …… 어찌 믿을 수 있는 역사라 하겠는가?”⁵⁶⁾ 사마광은 당시 현종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정과 황실의 위기를 극대화한 것이다.

懿宗은 사치스런 생활과 호화로운 불교 생활로 당나라 멸망의 시작점이 되었다. 咸通14년(873), 의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佛骨을 황실에 들이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였다.

봄, 3월, 계사일, 의종이 칙사를 보내 法門寺에 가서 佛骨을 맞이해오도록 했다. 많은 신하들이 간언하였고 憲宗이 佛骨을 받아들였다가 얼마 후 세상을 뜬 것까지 언급하는 자도 있었다. 의종이 말했다. “짐이 생전에 불골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대대적으로 불탑, 휘장, 향기가 나는 수레, 화려한 깃발, 가리개를 제작하고 金玉, 비단, 구슬, 비취로 장식하여 불골을 맞이하였다. 京城에서 절까지 3백리 사이 거리의 수레와 말들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여름, 4월 임인일, 불골이 수도에 도착하자 禁軍의 의장대와 음악으로 인도하니 천지가 들끓듯 환한 장관이 수십 리에 이어졌다. 의장대는 천지에 지내는 교제사보다 성대하여 憲宗 元和 연간 불골을 들여올 때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 부잣집들은 길 양쪽에 비단으로 장식한 누각을 짓고 법회를 거행하며 사치를 다투었다. 황제는 安福門에 행차하여 누각을 내려와 불골을 향해 절하면서 가슴팍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승려들과 수도의 노인들 중 元和 연간의 행사를 보았던 자들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궁궐에 불골을 들여왔다가 3일을 지낸 후 安國崇化寺로 보내 보관하게 하였다. 재상 이하들이 다투어 셀 수 없는 금과 비단을 시주하였다. …… 가을, 7월 무인일, 황제가 몸져누웠다. …… 신사일, 황제가 함녕전에서 붕어하였다.⁵⁷⁾

56) 袁枚, 《隨園隨筆》 권3<諸史類>中卷‘史家好言猥褻條’: “楊妃洗兒事, 新舊《唐書》皆無之, 以《通鑑》乃採唐人小說《天寶遺事》以入之, …… 何足爲信史耶?” 辛德勇, 《漢武帝: 由漢武帝晚年政治形象的塑造看《資治通鑑》的歷史構建》(三聯書店, 2018), 76쪽 재인용.
57) 《資治通鑑》 권252, 8165-8167쪽: 上遣勅使詣法門寺迎佛骨, 羣臣諫者甚衆, 至有言憲宗

의종 시기 불골을 황궁에 들인 일이 《신당서·懿宗本紀》에서는 “3월, 鳳翔에서 불골을 맞이하였다[三月, 迎佛骨於鳳翔.]”라는 8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광은 《杜陽雜編》을 인용하여 이 사건을 성대한 장면으로 재현하였다.⁵⁸⁾ 蘇鶚의 《두양잡편》은 《신당서·예문지》, 《郡齋讀書志》, 《直齋書錄解題》에서 모두 소설류로 귀납되었으며, 《사고전서》에서는 《山海經》, 《漢武故事》, 《搜神記》, 《太平廣記》 등과 동류인 ‘異聞之屬’으로 귀납되어 있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사고전서》 편수관들도 “기이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王嘉의 《拾遺記》, 郭憲의 《漢武洞冥記》를 祖述한 것”이라고 총평하였다.⁵⁹⁾

사마광은 왜 이런 소설을 인용하여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했을까. 이는 咸通 연간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 지나쳐 정사에 태만하였다.[上奉佛太過, 怠於政事]” “향락적인 생활에 절제가 없었다.[上遊宴無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上荒宴, 不親庶政]”, 대신의 간언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弗聽]”, “따르지 않았다[不從]”, “상소를 열람하고 불쾌해했다[上覽疏, 不悅.]”, “격노하여 꾸짖고는 내쫓았다[上大怒, 叱出之.]”라는 기록들과 연계되어 당시 의종이 불교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었던 상황을 극대화한 것이다. 게다가 “불골을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발언은 이어지는 7월, 무인일의 와병과 3일 뒤 신사일 세상을 뜬 記事와 연결되면서 의종의 비극적 말로를 불교 심취, 拒諫, 사치 등의 그릇된 행동과 연결 지어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迎佛骨尋晏駕者。上曰：“朕生得見之，死亦無恨！”廣造浮圖、寶帳、香輦、幡花、幢蓋以迎之，皆飾以金玉、錦繡、珠翠。自京城至寺三百里間，道路車馬，晝夜不絕。夏，四月，壬寅，佛骨至京師，導以禁軍兵仗、公私音樂，沸天燭地，綿亘數十里；儀衛之盛，過於郊祀，元和之時不及遠矣。富室夾道爲綵樓及無遮會，競爲侈靡。上御安福門，降樓膜拜，流涕霑臆。賜僧及京城耆老嘗見元和事者金帛。迎佛骨入禁中，三日，出置安國崇化寺。宰相已下競施金帛，不可勝紀。……秋，七月，戊寅，上疾大漸。……辛巳，上崩於咸寧殿。

58) 《杜陽雜編》 卷下：十四年春，詔大德僧數十輩於鳳翔法門寺迎佛骨。百官上疏諫，有言憲宗故事者。上曰“但生得見，歿而無恨也。”이하 《두양잡편》의 내용은 편폭이 길어 인용을 생략한다. 《唐五代筆記小說大觀》, 1397-1398쪽.

59) 《四庫全書總目》 提要：其中述奇技寶物，類涉不經，大抵祖述王嘉之《拾遺》、郭子橫之《洞冥》。

4. 결론

소설을 역사에 편입시킨 것은 《통감》뿐만 아니라 조금 앞서 편찬된 《新唐書》, 《新五代史》에서도 보이는 경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역사학자 內藤虎次郎은 “《통감》은 《신당서》, 《신오대사》와 마찬가지로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하였다. 《통감》도 사관의 주관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소설을 채택한 것이다.⁶⁰⁾

《자치통감》은 《신당서》가 인용한 소설을 그대로 채택한 것 외에 《신당서》가 채택하지 않은 소설까지도 인용했다. 본 논문은 후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신당서》가 “소설을 많이 채택하면서 정밀하게 선별하지 않았다(多採小說而不精擇)”는 비난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통감》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直齋書錄解題》의 《신당서》에 대한 평어를 참고할만하다. “善惡에 있어 감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까지 모두 끌어들이 번잡하기만 하고 無益하다.”⁶¹⁾

《자치통감》의 소설 인용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감계’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설이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마광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일, 경계로 삼아야 하는 나쁜 일은 제왕이 알아야 하는 것[善可爲法, 惡可爲戒, 帝王所宜知者.]”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택한 것이다.⁶²⁾

본 논문은 《자치통감》이 사실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60) 內藤虎次郎, 《支那史學史》 제9장 제4절 《資治通鑑》, 辛德勇, 《制造漢武帝》 제4장 <司馬光對漢武帝晚年政治取向的重構> 78-79쪽에서 재인용.

61) 《直齋書錄解題》: 今唐史務爲省文, 而拾取小說私記, 則皆附著無棄. 其有官品尊崇而不預治亂, 又無善惡可垂鑑戒者悉聚, 徒繁無補, 殆與古作者不侔.

62)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권208, 英宗治平三年夏四月辛丑日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편찬할 때 바친 글에서 언급한 것이다.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용한 사마광의 의도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사마광은 “소설이라도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지혜롭게 잘 변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⁶³⁾ 사소한 소설 일화의 진위를 수백 년 뒤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마광은 자신이 의도하는 서사를 위해 소설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마광은 范祖禹에게 《통감》의 자료를 정리하게 하면서 “괴이한 내용이라도 경계가 될 수 있고 해학적 내용이라도 유익하다면 모두 남겨둘 것”을 당부하였다.⁶⁴⁾ 경계가 되고 유익하다면 그것이 소설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가는 소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교훈성과 유익함이 없는 소설을 경계한 것이다.

북송 시기 소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당시 조정의 주도로 類書인 《冊府元龜》를 편찬할 때 眞宗이 “정통적이지 않은 소설은 모두 취하지 말라 [異端小說, 咸所不取, 可謂盡善]” 지침을 내렸던 것에서 알 수 있다. 《冊府元龜》의 편찬에 참여했던 자들은 소설이 ‘믿을 수 없고[匪信書]’ ‘자질구레하며 [小事]’ ‘괴이하므로[多語怪]’ 채택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冊府元龜》에서 수록하지 않은 소설을 《통감》은 모두 인용한 것이다.⁶⁵⁾

63) 司馬光, 《傳家集》 卷63<答范夢得> 注: 其實錄, 正史未必皆可據, 雜史、小說未必皆無憑, 在高明鑒擇之.

64) 司馬光, 《傳家集》 卷63<答范夢得>: 妖異有所警戒, 談諧有所補益, 並告存之.

65) 남송의 洪邁는 《책부원귀》의 편찬 원칙을 《자치통감》과 대조하여 설명하였다. 《容齋隨筆·四筆》 권11<冊府元龜>: 子孫들이 자신의 선조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선조들의 덕행과 가문의 내력을 회상하여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李繁의 《鄴侯傳》과 《柳氏序訓》·《魏公家傳》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술들은 자신과 선조들의 악행과 나쁜 점들을 감추기도 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덕행을 삭제해버리기도 하면서, 자신과 선조에 대해서 좋은 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 《殷芸小說》과 《談藪》 같은 저서는 우스운 이야기와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 《西京雜記》와 《明皇雜錄》은 대체로 황당하고 괴이한 이야기들이고, 《奉天錄》은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지 않고 모두 채택하여 수록한다면, 잡다하고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자치통감》은 그렇지 않았다. (有子孫追述先德敘家世, 如《李繁鄴侯傳》, 《柳氏序訓》, 《魏公家傳》之類, 或隱己之惡, 或攘人之善, 並多溢美, 故匪信書. …… 《殷芸小說》, 《談藪》之類, 俱是談諧小事; …… 《西京雜記》, 《明皇雜錄》, 事多語怪; 《奉天錄》尤其是虛詞. 盡採錄收, 恐成蕪穢. …… 如資治通鑑則不然.)

이는 '감계'의 목적과 연계된다고 본다.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면 먼저 공감하고 감동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 사실 자체는 아무런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다. 조정의 정책, 황제의 조서, 관료의 상주문, 관직 이동, 전쟁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면 독자는 역사로부터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교훈은 인물이나 사건과의 교감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악인에게 분노하고 억울한 자를 동정하고 선인을 흠모하는 등의 감정 이입이 생겨나면서 교훈도 수반된다. 만약 《통감》 중 소설 부분을 모두 빼내더라도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동과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사라진다. 사마광이 소설을 인용한 것은 감계를 위한 서사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실 여부보다 '감계'라는 목적을 우선하여 자료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권선징악을 전하고 유가의 도리, 성인의 뜻에 부합한다면 小説은 正史와 동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⁶⁶⁾

< 參考文獻 >

- 司馬光, 《資治通鑑》, 中華書局, 1995.
 歐陽脩·宋祁, 《新唐書》, 中華書局, 1997.
 劉昫等, 《舊唐書》, 中華書局, 1997.
 劉知幾 著·浦起龍 釋, 《史通通釋》, 藝文印書館, 1978.
 永瑤等,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5.
 趙翼 著·王樹民 校證, 《廿二史劄記校證》, 中華書局, 2001.
 章學誠 著·葉瑛 校注, 《文史通義校注》, 中華書局, 2000.
 劉餗·張鷟, 《隋唐嘉話·朝野僉載》, 中華書局, 1997.
 劉肅, 《大唐新語》, 中華書局, 1997.
 王仁裕·姚汝能, 《開元天寶遺事·安祿山事迹》, 中華書局, 2012.

66) 《閱微草堂筆記·鄭序》: 공이 지은 필기를 보니 글의 의미가 忠厚하고 체례가 근엄하며 주제가 모두 권선징악으로 귀결되는 것이니 바로 是非가 聖인과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다. 小説이기는 하지만 正史와 마찬가지로이다.(今觀公所著筆記, 詞意忠厚, 體例謹嚴, 而大旨悉歸勸懲, 殆所謂是非不謬於聖人者歟? 雖小説, 猶正史也.)

- 鄭處誨·裴庭裕, 《明皇雜錄·東觀奏記》, 中華書局, 1997.
- 洪邁, 《容齋隨筆》, 中華書局, 2009.
-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周勛初, 《唐代筆記小說叢錄》, 鳳凰出版社, 2008.
- 章群, 《通鑑·新唐書引用筆記小說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9.
- 辛德勇, 《漢武帝: 由漢武帝晚年政治形象的塑造看《資治通鑑》的歷史構建》, 三聯書店, 2018.
- 施寬文, <《資治通鑑》運用筆記小說之敘事特色舉隅>, 《嘉大中文學報》, 2017年11月.
- H. 포터 애벗 저, 우찬제 등 역, 《서사학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2.
- 최성철, <역사와 서사>, 《한국사학사학보》, 2017. 6.

< Abstract >

A Study of the Role of 'Xiao-Shuo(小說)' in *Zizhi-Tongjian*(資治通鑑):
Focusing on *Tang-Ji*(唐紀)

An, Yeasun

Sima-Guang's *Zizhi-Tongjian* is known as the most realistic and objective work of history in the pre-modern Chinese can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such works to be completely neutral since authors' subjective perspectives and positions tend to be reflected in them. Authors select, arrange, and synthesize materials in order to clearly convey the essence and parameters of their subject. In this light, this study examined *Zizhi-Tongjian* not as a volume of history solely composed of facts but as an epic text that requires literary analysis.

Zizhi-Tongjian is a work of history that covers the long period spanning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Five Dynasties. Central to the text is the lesson that it was the duties imposed by the practice of Confucian that caused

the rise and fall of dynasties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Materials that supported this perspective were selected and included while those that did not were excluded or edited to support this thesis, and in this process, 'Xiao-shuo', trivial or quotidian anecdotes, were cited. This tendency is especially prominent in the section *Tang-Ji*, which is a record of the Tang Dynasty, in which rather than accurate facts, materials that were helpful in conveying this perspective were selected and employ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citing Xiao-shuo, Sima-Guang was able to create memorable depictions of people with moral flaws. Second, by doing so, he emphasized the outstanding aspects of notable figures. Third, in this way he described illustrative situations in a more serious and dramatic way. Although Xiao-shuo were originally sometimes opaque and informal materials, they became a part of received history through their adoption by Sima-Guang. Ultimately, historically the criterion that distinguished a work of history from a novel was not whether it was true but whether it amounted to an effective didactic epic.

Key words: *Zizhi-Tongjian*, Sima-Guang, Bi-Ji, Xiao-Shuo, Historical Narrative, Historical descrip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0 -08. 25	2020. 08. 16	2020. 08. 26	2020. 09. 30